

불황 뒤의 호황을 준비하자



강 화 순 회장
한국양돈수의사회

국내 양돈은 2003년 12월 미국의 광우병 발생과 해상운임 상승으로 야기된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돼지가격이 상승하여 지난 3년간 고돈가를 만끽했다.

하지만 2006년부터 바이오 연료 생산과 국제 해상운임 폭등으로 야기된 국제 곡물가격상승으로 인하여 생산비는 증가되고 수입돈육의 증가로 인하여 국내 돈가는 떨어지면서 2007년 내내 국내 양돈업계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어려움이 하반기가 되면서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 곡물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료가격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돼지 생산비가 큰 폭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양돈업은 만성 소모성 질환에 의한 돼지의 높은 폐사율로 인한 낮은 생산성, 분뇨 해양배출 감축에 따른 분뇨처리의 어려움, 인력난과 자금난 등과 한·미FTA 협상타결에 이어 한·EU FTA협상 등 전세계와의 FTA협상 진행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많은 돈육 수입물량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어려운 2008년을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한다면 양돈업이 다시 서는 원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희망을 갖고 다같이 열심히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1. 불황은 오래가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한 많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2007년 중반기부터 대부분의 농가에서 모돈을 줄이거나 일부 농장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농장을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가면서 가속도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양돈장의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2008년 국내 돼지 생산량은 급속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돼지고기 수입도 국제 돈가 상승으로 인하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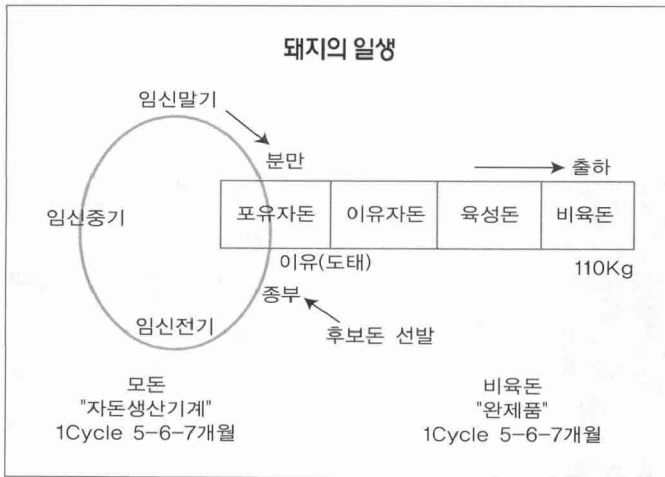
소비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으로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돼지고기가 일반국민의 대중 육류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는 꾸준히 유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불황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도 불황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불황 시 호황을 준비한 사람은 호황을 만끽 할 수 있었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호황을 미리부터 준비하여 호황을 만끽하도록 하자.



2. 어떻게 호황을 준비 할 것인가?



성공한 사람이나 기업은 적어도 한 계절, 1년 또는 몇 년 이상을 앞서 미리 준비하거나 앞서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양돈인들도 적어도 한 계절, 1년은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돼지의 생산주기는 후보돈 준비에서 부터는 1년이 소요되며 경산돈의 경우는 10개월이 소요된다.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호황이 와도 팔 돼지가 없어 호황을 누리

지 못하게 된다.

필자는 지난 24년간 현장에서 일하면서 우리 양돈인들이 범하는 우를 참 많이 보아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불황이 오면 모돈수 줄이고,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며, 호황이 오면 모돈수 늘리고 그때서 투자를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양돈 생산주기는 최소 1년 이상으로 다음 호황 시 호황을 만끽하지 못하고 투자를 해놓았는데 불황이 와서 빛만 늘어나는 것이었다.

이제는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지금부터 미리 호황을 준비하도록 하자.

가. 강건한 모돈군을 만들자

모돈은 농장의 근간이다. 모돈이 건강해야 농장이 잘 운영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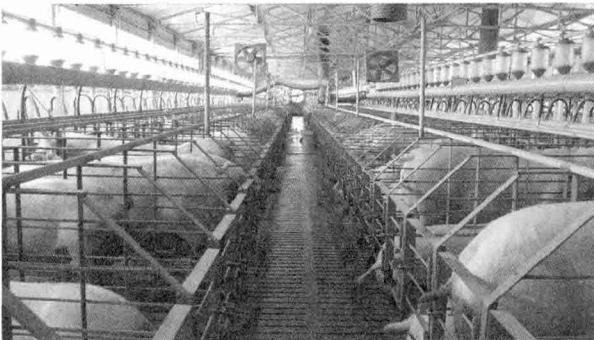
모돈이 생산성을 제대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는 적정 산차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모돈 갱신을 하여야 한다.

평균 모돈산차는 3.0~3.5산차 내외가 되도록 모돈 갱신을 연간 4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모돈 수명은 5.5~6.0산 정도가 되도록 하고 7산 이상의 노산은 과감하게 도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적정 모돈 산차관리 방법 ❖

- | | |
|---|--------------------------------------|
| • 모돈 갱신을 : 연간 40% 이상(미국, 유럽 : 50% 이상) | • 초산돈과 노산이 문제 : 질병/성적/사고 |
| • 모돈 100두 농장 필요 후보돈 수 : 연간 50두(80% 사용시) | • 6산 이상의 노산돈 : 계획적 도태 |
| • 월간 4~5두씩 도입 또는 교체 | • 초산돈 : 후보돈 도입관리 프로그램 적용 |
| • 하절기 20~30% 증대 : 6두 | • 후보돈 자가생산 시 : 7~10% 순종돈 운영 |
| | • 성수기 : 비싸고 공급애로, 겨울철 : 질병 문제로 도입 애로 |

나. 기본에 충실한 관리를 하자



양돈은 일년 365일 꾸준히 관리를 하여야만 제대로 된 생산성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불황이라고 관리를 소홀하게 한다면 호황 시 수확할 것이 없어지게 된다.

항상 불황은 짧고 호황은 길었으므로 희망을 갖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여야 한다.

(1) 돼지에 맞는 돈사 환경을 만들어 주자

일반적으로 불황이 오면 돈사에 대한 투자를 소홀하게 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물론 당장 어려운데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투자를 하지 않으면 당장 생산성 저하로 나타나 수익이 더 나빠지게 되고 호황이 왔을 때는 호황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돼지에 맞는 돈사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를 계속하여야 한다. 즉, 돈사 일교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온 및 환기 시스템과 급이기 개선 등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최



소한의 비용으로 돼지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돈사 리모델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하자

불황시기에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실수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 품질 저가사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당장은 사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지 몰라도 사료비용이 줄어드는 이상으로 돼지의 번식성이 떨어지고 증체가 잘되지 않아 출하할 돼지가 줄어들게 되어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 또한 저 품질 사료 사용 시 밀사로 인해 호흡기 등의 질병이 많이 발생하게 되며 위축돈의 발생이 높아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무리 불황이라 하더라도 사료비 이상의 돈가 시는 크게 키우는 것이 이득이므로 고효율 사료를 급여하여 출하체중을 증대시키고, 출하금액을 증대시켜 이로인해 자금회전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질병을 예방하자

불황이 오면 사료비 절감에 이어 약품비용을 가장 많이 줄이는 경향이 있다.

영양 부실에도 방역 비용까지 줄이다 보면 자연 질병에 대한 항병력이 떨어져 생산성은 더 많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적인 소독 및 백신, 구충 비용은 줄여서는 안 된다.

농장의 질병은 치료보다는 예방에 힘을 써야 한다. 정기적인 구충과 소독을 철저히 하고 예방백신 접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소독이야 말로 질병의 원인체를 없애는 것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는 환절기와 겨울철에는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소독이 먼지와 습도관리에도 매우 중요하다.

질병에 대한 항병력 강화를 위해 예방백신 접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고품질 돼지고기를 생산하자

저돈가일수록 돼지품질이 더 중요하다.

고돈가 시는 아무 돼지나 잘 가져가지만 저돈가 시는 품질이 안 좋은 돼지는 잘 사가지도 않는다. 따라서 돼지고기 품질을 향상시켜 돼지고기 소비를 더 많이 증가시켜야 할 뿐 아니라 돼지고기 경락 가격을 더 높여 더 많은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고영양 사료를 충분히 급여하여 115kg 이상의 규격돈 돼지를 생산하여야 하며, 출하일령도 단축하여야 한다.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잃지 않으면 살 수 있다고 했다.

아무리 어려워도 다가올 호황을 생각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착실하게 준비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껏 극복되지 않은 어려움은 없었다. 우리 다같이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다가올 호황을 준비하자. 호황 시 호황의 즐거움을 다 함께 누리도록 다같이 준비하자. **양돈**